

국제유가 상승 직격탄... 공업제품·교통 물가까지 ‘들썩’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올라 공업제품·교통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반면 밥상물가를 끌어올렸던 채소와 축산물 가격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올랐다. 지난해 7~9월 2%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1%대(1.8%)에 진입하고서 9개월째 1%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9개월 연속 2%를 밑돈 것은 2012년 11월~2016년 12월(4년 2개월) 이후 처음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에는 석유류의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 뛰며 전체 물가를 0.44%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번 오름폭은 지난해 4월(11.7%)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 경유는 12.3% 올라 역시 지난해 4월(14.1%)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석유류 가격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그 여파로 공업제품(1.8%)과 교통(4.1%) 물가도 많이 올랐다. 교통비 물가는 작년 5월(4.5%) 이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밥상물가 상승을 이끌던 농·축·수산물 상승세는 다소 꺾였다.

농산물은 6.7% 올라 앞선 5월의 상승률 9.0%에 비해 둔화했다.

채소류 가격은 6.4% 상승해 5월(13.5%)보다 오름폭이 크게 낮아졌다. 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내리며 전체 물가를 0.20%포인트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 1.5% 상승

석유류가격 작년보다 10% 올라

교통비 물가 작년 5월 상승 최고

농축수산물 상승세는 다소 꺾여

재고량 부족 쌀 가격 34% 경증

축산물가격 1년전보다 7.4% 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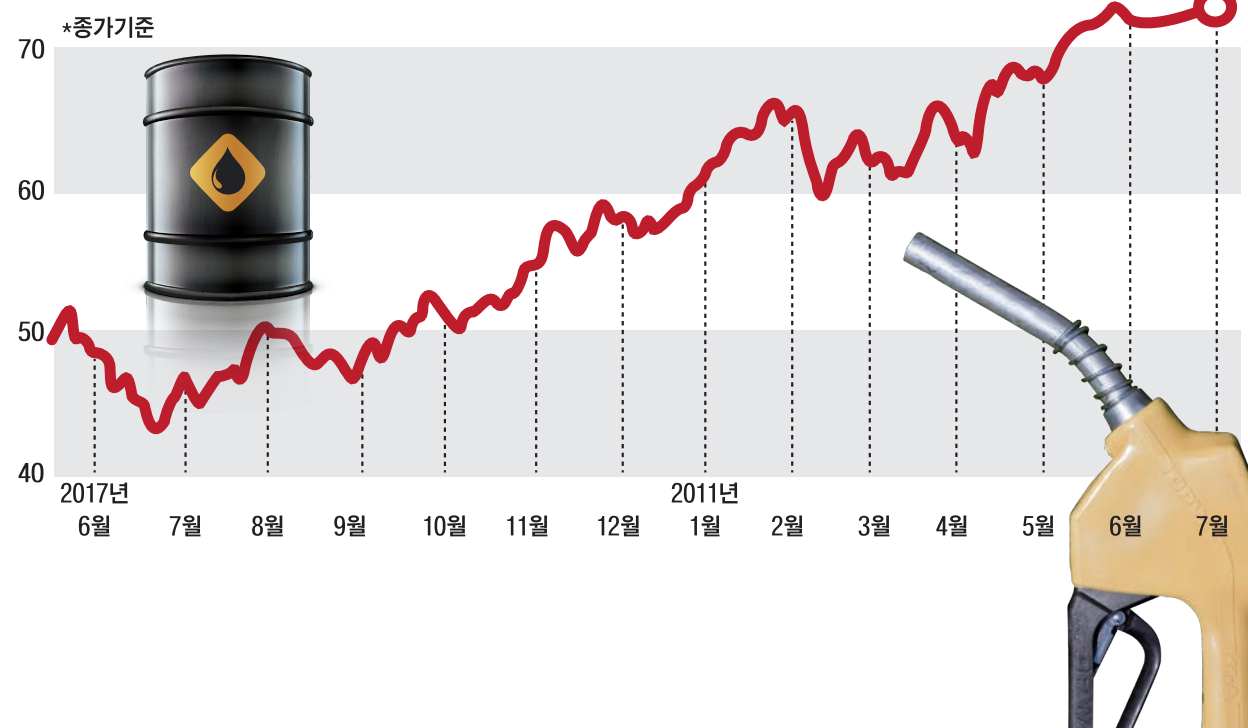
트 낮췄다.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상승률은 1.8%로 올해 1월 -0.6%를 기록한 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1년 전에 비해 달걀은 42.0%, 돼지고기는 7.1%, 닭고기 12.7%, 수박 9.6%, 양파 14.9% 각각 하락했다. 특히 5월 가격 상승률이 59.1%

WTI 유가추이

*단위: 달러(배럴 당)



있던 갑자는 출하량이 늘면서 6월 8.1%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재고량이 부족한 쌀 가격은 1년 전보다 34.0% 상승했다. 작년 11월(12.5%) 이후 8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또 생산량이 감소한 낙지 가격도 43.1% 올라 오름폭이 컸다. 채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4% 올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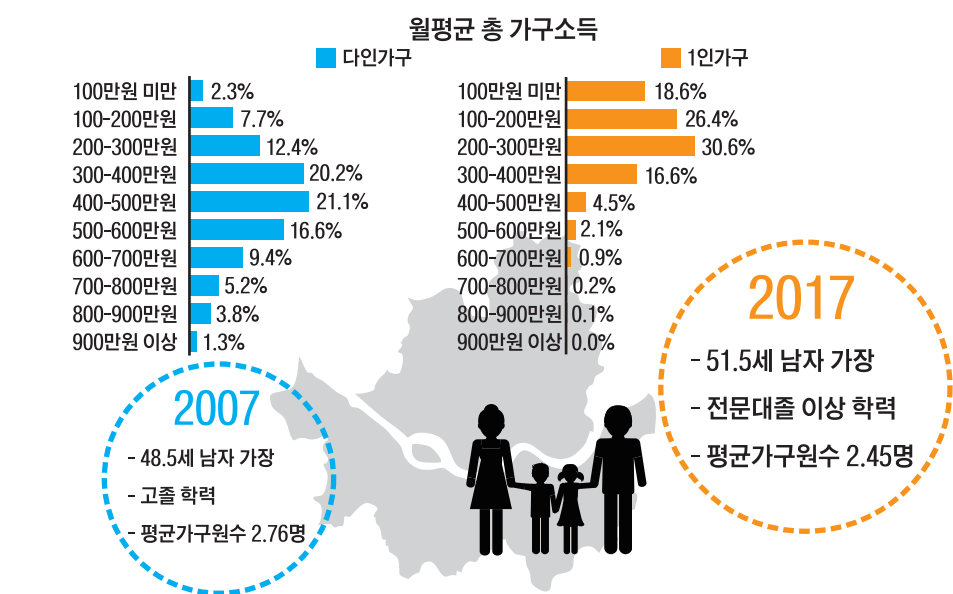
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2.0% 올랐다. 전월 상승폭 4.5%보다 둔화했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농산물 및 석유

류 제외지수'는 1.2% 올랐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갑자 등 채소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고 축산물, 달걀,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도 하락했다"며 "다만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



서울 고령화, 가구 소규모화 심화

자치구 간 학력 격차도 뚜렷

서울 시민의 고령화와 가구의 소규모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만2687명)와 서울에 사는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해 3일 발표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가구주 평균 나이는 51.5세로 2007년 48.5세보다 3세 높았다.

가구주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평균 가구원수는 2.45명으로 10년 전 고졸 이상, 2.76명에 비해 고학력화 및 소규모화 경향을 보였다.

자치구 간 학력 격차는 뚜렷했다. 4년제 대졸 이상 가구주 비율(서울시 평균 40.8%)은 서초구 61.7%, 강남구 61.5%지만, 금천구 18.7%,

강북구는 30.1%였다.

과반인 54.7%가 소규모(1~2인 가구) 가구였다. 1인 가구는 2016년 기준 30.1%였다. 25개 자치구에서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자치구는 관악구(45.1%), 중구(38.2%), 종로구(37.6%) 등 3곳이었다.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42.1%, 월세 31.2%, 전세 26.2% 등이었다. 10년 전보다 자가 비율이 2.5%포인트 줄고, 월세는 10.8%포인트 늘어 월세로의 주거형태 변화가 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가구주 월세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젊은 가구주의 어려운 주거상황을 보여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30대 가구주의 43%는 5년 이내 이사 계획이 있었다. 선호지역은 서남권(25.4%), 동북권(20.9%) 등이고 희망 거주 형태는 전세(55.4%), 자가(39.2%) 등이었다.

대기업 지주사 내부거래 비중 55% 육박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 수단 악용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제도가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총수 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지주회사 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3일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18개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반면 지주회사

의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육박했다.

공정위는 1999년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주회사 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환집단 지주회사(지주회사·소속회사 자산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인 지주회사) 18곳을 분석했다.

18곳은 SK·LG·GS·한진칼(이하 한진)·CJ·부영·LS·제일홀딩스(하림)·코오롱·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한국타이어)·동원엔터프라이즈(동원)·한라홀딩스(한라)·세아홀딩스(세아)·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퍼시픽)·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한진중공업홀딩스(한진중공업)·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한솔홀딩스(한솔) 등이다.

ENERGY를 CHANGE하라

자연을 에너지로
건강한 환경을 생각합니다.
안전한 에너지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환경과 인류를 지키는
ENERGY CHANGE!
한국남동발전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합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탐라해상풍력 전경〉